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책임져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1일 신학기 총파업 돌입 도교육청, 파업 대비 긴급 대응반 구성 신속보고체계 구축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월 31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다. 연대회의는 27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신학기 총파업을 선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9월 14일부터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9회 등의 집단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육당국은 기본급 2% 인상안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동결 등을 제시하며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전국적인 총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연대회의는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개편을 요구했다. 사용자측의 계속된 거부로 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의 임금 수준 및 체계등의 논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사

용자측은 19차 실무교섭 시 협의체 구성을 거부하며 임금체계개편을 위해 노력한다는 낮은 수준의 문구와 총 2회 협의를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측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현 사회 분위기에서도 기본급 2% 인상안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없음 등을 제시하며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 15일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교급식실 종사자 건강검진의 후속 조치이나 현재 급식실의 폐압 산재 및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급식실 종사자들의 조기 퇴사, 신규 채용 미달 등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급한 과제로 학교급식실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급식실 배치 기준을 하향 표준화하고 환기시설 개선 등 급식실 노동환경 종합대책을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신학기 총파업 선포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추구했다. 끝으로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의 90%가 여성노동자이며, 유석열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자립금 구조 개선을 위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타결 못하고 있는 집단임금 교섭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교육공무직원들의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단일임금협상을 위한 노조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추후 협의에 반영한다”는 노조 요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파업에 대비해 긴급 대응반을 구성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조정, 대체식 구매 제공, 도시락 지참 등 급식 운영안을 결정하고 이를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품 중단 사전 통보 및 파업으로 인한 결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돌봄은 최대 22명까지 통합 운영하고, 독서·속제 등을 위해 오후 4시 30분까지 교실을 개방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2년 11월 25일 이뤄진 교육공무직원 총파업에 보내에서는 7,035명 중 1,412명인 20.1%가 참여했다. 직종별로는 조리실무사 913명(37.4%), 특수교육지도사 47명(11.9%), 돌봄전담사 187명(24.9%) 등이 동참했으며, 양양사, 교무실무사, 경비원 등은 극소수로 참여했다.

이로 인한 급식 중단 학교는 810개교 중 219개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락 및 대체식 제공은 216개교며, 급식 미실시 학교는 3개교였다. 또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학교는 423개교 중 56개교로 13.2%였다. /정은성 기자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30일 전주대 본관서 사업설명회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전북지역 문제해결플랫폼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본관 124호에서 ‘2023년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북도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 주민의 주도하에 지역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기존의 관주도의 지역 문제해결 방식에서 탈피해 주민 주도하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학계·기업 등과 함께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민·관·공 협업체제 구축사업이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 도민제공모’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플랫폼 소개 및 사업내용,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오늘 학교장 학교환경교육 리더십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 2023년 학교(원)장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리더십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력을 갖춘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학교의 환경리더로서 학교(원)장의 인식을 높여주기 위함이다.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이날 연수는 오전에는 유·초·중·고(원)장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중·고·특수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날 연수는 환경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방법의 전환보다는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연수로 구성, 학교환경리더로서 공동체 의식과 실천 및 참여의 가치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먼저, 2023학년도 전북도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의 정책과 운영 방향에 대한 안내를 통해 학교환경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환경연구원 김남수 부원장이 기후행동의 학교 전체 접근이란 주제로 현 시점에서 교육이 그리고 학교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해 안내하고, 청소년 기후행동 김보림 사무국장이 ‘우리의 목소리가 되었을 때’라는 주제로 미래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교육이 선도적으로 나서야함을 전한다. /정은성 기자



27일 전북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제4기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촉식이 열렸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전북도교육청, 제4기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촉식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일 5층 회의실에서 ‘제4기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7조에 의해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 학생들의 도덕성과 민주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등에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학생들이 도덕성과 민주시민의식을 키워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위원회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도의회 11명으로 구성, 임기는 2년이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교육과정에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교 300학급에 인

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예·효·정직 등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가 교육과정에 스며들 수 있는 현장중심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전인적 성장이 필요하다”면서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다양하고 세밀한 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소통과 배려, 나눔 등을 생활화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한 단계 더 높은 배움의 세계 경험하러”

과학영재교육원 입학식 1년 심화·사사과정 돌입

전북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손홍찬)은 지난 25일 진수당 가인홀에서 2023학년도 입학식을 갖고 1년간의 심화 및 사사과정에 돌입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입학식에는 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내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홍찬 원장의 인사와 교육과정 안내 등이 이어졌다.

올해는 초등심화과정 54명을 비롯해 중등심화과정 88명, 중등사사과정 35명 등 총 175명이 입학했다. 심화과정 학생들은 STEAM 교육, SW융합교육,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 1년간 100시수 이상의 다양한 영재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심화과정 중 영재성이 뛰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사과정에서는 연구 프로젝트 형태로 80시수 이상의 교육이 진행된다.

손홍찬 원장은 이날 입학식에서 “우리 영재교육원에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수학·과학·공학·인문학 분야 등 매우 다양한 주제로 한 단계 더 높은 배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과학영재들이 교육을 통해 지역과 국가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영재교육원은 1998년 전북대 사범대 과학교육연구소 내에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센터’로 설립돼 2002년 전북대 부설기관인 과학영재교육원으로 승격돼 올해로 26년째 운영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손홍찬)은 지난 25일 진수당 가인홀에서 2023학년도 입학식을 갖고 1년간의 심화 및 사사과정에 돌입했다.

“인권우호적 학교 문화조성 기여”

군산교육지원청 학생의회 출범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은 지난 25일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동’에서 2023년 제1기 군산교육지원청 학생의회 출범식을 갖고 학생 의원들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군산학생의회는 초등학교 4명, 중학생 8명, 고등학교 8명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년간 지역 학생을 대표해 군산 내 학생 인권 및 학교 생활 개선,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날 당선증 수여식에서 박경희 교육장은 “제1기 군산학생의회 출범을 축하한다”면서 “군산학생의회의 연대와 참여로 학생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해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투표를 통해 의장에는 군산중앙고 정한선 학생이, 부의장에는 한동고 이수형 학생이, 그리고 간사에는 군산금강중 허은 학생이 각각 선출됐다. /정은성 기자



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해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투표를 통해 의장에는 군산중앙고 정한선 학생이, 부의장에는 한동고 이수형 학생이, 그리고 간사에는 군산금강중 허은 학생이 각각 선출됐다. /정은성 기자

미래형 거점 유치원 8곳 학부모 놀이교실 8곳 선정

도교육청, 연간 2회 이상 컨설팅 등 운영 현황 공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미래형 유치원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미래형 거점 유치원 8개원,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8개원’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사회와 지구생태계 변화 속에서 아이들이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미래형 거점 유치원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해 AI 및 디지털 기반 유아 놀이 지원 방안 연구, △기후 및 지구생태변화에 따른 생태 전환교육 연구 △미래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유아를 기르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 연구를 추진한다.

군산도담유치원을 비롯해 △군산금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리리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장수한사람유치원 △유수대학교부설유치원 △합죽유치원 △부춘유치원 등이 선정됐다.

이러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은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요구되

는 학부모의 유아 놀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학부모가 참여·주도하는 학부모회, 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의 기회 제공 및 학부모 수업 참관 등을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 및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제고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전주온샘유치원과 △전주봉남유치원 △전주홍신유치원 △익산부송유치원 △전주초록빛유치원 △세움아이유치원 등 8개 유치원 △아이사랑유치원 등이 선정됐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선정된 미래형 거점유치원’에는 원당 2,000만원,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에는 원당 1,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연간 2회 이상의 컨설팅과 모니터링, 수업 나눔 등 운영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유치원의 미래교육은 변화하는 생활 환경에서 유아를 교육할 행복하게 영유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며 “미래형 유치원 교육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유치원의 교육력이 강화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유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신규공무원 실무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은 ‘신규공무원 실무연수’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수 대상자는 2022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저경력공무원(사립학교직원 20명 포함)으로 교육행정직 120명, 운전직 21명, 시설공업직 14명 등 총 7개 직렬 180여 명이다.

연수는 각 직렬 및 근무기관의 특성에 따라 총 2기로 나눠 편성했다. 지난 21~24일까지 운영된 1기 연수과정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과 시설관리직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어 오는 4월 4~7일까지 진행되는 2기 연수과정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과 기타 직렬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연수 내용은 현장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실무, 기록물관리 등의 기본 직무과정을 학교 현장업무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또 직렬별 직무과정을 신설·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직무능력 향상에 목표를 뒀다.

문병기 원장은 “신규공무원 실무연수가 교육현장의 행정업무역량 향상 및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저경력공무원들의 행정역량을 지원하고, 합인사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